HANURI TOUR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77.890.5913~4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310·538·3333 samsungmoving.com

Tel. 213-739-0403 Fax. 213-402-5136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May 16, 2013 Vol.388

가정의달 맞아 사랑의 점심 행사 = 지난 9일 정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필그림루터교회에서 한인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점심 행사가 열렸다. 비영리재단 해피빌리지와 우메켄 USA가 공동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3백여명의 한인 어르신들이 참가했다. 사랑의 점심 행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가 매달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정기 자선 행사로,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물론 명절이나 연휴에 맞춰 정성이 담긴 선물도 제공해 왔다.

미네소타州 동성결혼법 통과 "성직자 설교에 영향" 공언

13일 미네소타 주 상원이 37대 30으로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며 미네소타는 전국에서 12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됐다.

민주당 다수인 상원에서의 법안 통과는 이 법안이 이미 하원을 75대 59로 통과하면서 예상됐던 일이었다. 마크 데이튼 주지사는 14일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라 발표했으며 8월 1일부터 법이 정식 발효된다.

비록 근소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으며 거의 통과가 확실시 되어 왔다.

이로써 이번 5월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주는 로드 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 등 3개가 됐다. 동성결혼을 허가할 13번째 주로는 일리노이가 유력하다. 일리노이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상원에서는 아직 결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美 교육부, 학자금 지원 양식에 '부''모' 용어 삭제

'부모1, 2' 로 대체

동성간 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결혼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 교육부는 최근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양식에 필요한 '법적 보호자 정보' 기재시, '부', '모'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서 양식에는 이를 대신해 '부모1(parent1)', '부모2(parent2)'라는 용어가 사용될 예정이다.

미 교육부는 지원서 양식이 변경되는 이유와 관련해 "성별을 특정한 기존 양식으로는 주 법에 따라 동성결혼을 한 학부모의 수입과 다른 정보들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2014-2015년도 학자금 지원 양식의 변화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른 던컨 미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들이 연방 학자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학자금 체계는 이들의 독특한 가족 상황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가정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폭넓은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미 교육부가 사용했던 학자금 지원 양식은 단순히 학부모의 결혼 여부에 대한 정보만 수집해왔으나, 이번 양식에 따르면 학생들의 법적인 부모가 생물학적 부모인지, 양모인지, 이성 혹은 동성간 결혼을 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게 된다.

게이, 레즈비언 & 스트레이트 에듀케이션 네트워크(GISEN)의 공공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쇼운 게이로드(Shawn Gaylord)는 워싱턴 블레이드(Washington Blade)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가족 구성 상태를 더욱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의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 GISEN은 성적인 지향성을 보장하고, 성적 정체성이 미국 학교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오랜 기간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미 행정부에 로비를 벌이고 있는 가족평등위원회와 더불어, 트랜스젠더 단체, 동성애 옹호 단체들 역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간

고난의 능력

존 맥아더 | 전의우 역
요단 | 224쪽

고난의 역할을 새롭게 보게 하기 위한 저자 존 맥아더의 심오하고 강력한 메시지들을 담았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겪는 아픔과 상처를 깊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고난을 어떻게 선하게 활용하시고 그들의 무거운 마음에 어떻게 격려와 희망을 주시는지 탐구한다.

제1회 세계선교교회 여름학교 학생 모집

세계선교교회에서 여름방학 동안 자녀들을 썸머스쿨에 보내기 힘든 LA 지역 한인타운 내 저소득층을 위해 여름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8주에 걸쳐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2013년도 가을학기를 기준으로 1학년부터 8학년까지다.(선착순 60명 제한)

프로그램은 오전 중에는 소그룹 별로 영어와 수학 등 학과 공부, 오후에는 뮤지컬, 악기 연주, 미술, 북클럽, 전통놀이, 요리, 성경공부에 참여한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공원, 박물관, 수영장 등 야외답사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5월 17일 오후 3-8시, 18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받는다. 관련 문의는 이메일 wmchop@gmail.com로 하면 된다. ▷주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포 커 스

16, 17면 북새통
» 신간소개 | 재정 플러스,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外
» 서평 | '제자' 라는 이유만으로, 우릴 싫어할 사람 분명 있다
| 가정의 달 5월, 믿음의 유산 전할 이것도 시작해 보자
19면 가수 윤복희 "주님 계시니 단 1초도 외롭지 않아요"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ASE CERTIFIED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美 기독교 천문학자 "빅뱅 이론의 전제, 성경과 일치"

우주의 모습 〈사진제공=나사〉

기독교 천문학자인 J.와그너 월리스(J.Wagner Wallace)가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왔다'는 빅뱅 이론의 근본 전제는 성경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의 모든 것이 무에서 시작됐고, 그 이전에 '빅뱅'혹은 창조의 순간이 있었다는 주장은 모든 기독교인들과 과학자들도 동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월리스는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공간, 시간, 그리고 물질이 시작점을 갖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모든 것이 무에서 나왔다는 이 개념은 '빅뱅 이론'의 근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근본 전제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실(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절대적으로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나는 창조의 순간이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좋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저서 'Cold-Case Christianity'를 펴낸 월리스는 "일부 교회들은 지구와 창조 모델에 대한 특정 관점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빅뱅 이론 인식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여러분이 빅뱅 이론을 핵심으로 줄인다면, 그것은 무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것이고, 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대부분이 확고히 해야 하는 전제라고 생각한다. 창조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빅뱅 이론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구와 우주의 나이는 '별도의 논쟁'

월리스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붙들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전형적으로 빅뱅 이론에 따른 우주의 나이를 푸는 데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나이가 수억 년에 해당한다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별도의 논쟁"이라고 말했다.

"우주가 무에서 나왔다는 점은 기독교인들과 빅뱅 이론 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점이고, 양쪽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영역이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논쟁을 할 수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우주의 고대 나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주의 나이를 푸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난 젊은 지구론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논쟁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에서 창조됐느냐'는 이슈는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것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물론, 빅뱅 이론에 대한 인식이 지구와 우주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모든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대답을 확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월리스는 "내가 빅뱅 이론을 수용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물리적 법칙과 원인에 의해 설명된 대답들만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자연적인 많은 원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과정과 기간에 관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모든 시공간과 물질의 시작 원인이 되기에 충분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다. 내게 '이것'은 두렵도록 강력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가 과학의 결과로 보는 열역학 제1법칙, 우주배경복사의기원 등은 과거와 시작을 가리키고 있는 것들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제를 수용하려 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익숙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빅뱅은 빅뱅을 일으키는 원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때 무신론에 심취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1996년 회심하고 기독교인이 됐으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증거적 접근(evidentia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미주찬송가공회 올해 다양한 사역 계획

교회음악 발전과 인재양성 위해 진흥재단 설립

미주찬송가공회(회장 박재호 목사, 이하 찬송가공회)가 8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사역 계획을 발표했다.

찬송가공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사역계획으로 △제3회 미주찬송가 페스티발 △제3회 교회음악 공로자 시상식 △교회음악 발전과 교회음악 전공자를 위한 진흥재단 설립 △미주교회음악 경연대회 △한국인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남미선교음악회 △한국찬송가공회 미주찬송가공회 정식 MOU 체결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주찬송가 페스티벌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교회음악 공로자 시상식은 연말에 갖는다. 찬송가공회는 시상식을 위해 조만간 추천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교회음악 발전과 교회음악 전공자를 위한 진흥재단은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장학생도 선발할 계획이다.

박재호 목사는 "교회음악이라는 분양는 특히 투자와 공부가 많이 이뤄져야 가능한 분야"라며 "앞으로 이 재단이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미주 교회음악 경연대회는 찬송가 페스티발과 더불어 10월에 열릴 예정이며, LA와 리버사이드, OC 등 세 지역으로 나뉘어 열린다. 한국인 브라질 이민 50주년 기념 남미선교음악회는 7~8월 즈음에 열린다.

이에 대해 박재호 목사는 "브라질에서 2014년에 월드컵, 2016년에 올림픽을 열릴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성대한 음악회가 될 줄 믿는다. 음악회 팀들이 브라질에서만 참여할 경우 개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북미지역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주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미주찬송가공회는 한국찬송가공회와 8일에 정식으로 자매결연 MOU를 체결했다. 두 단체는 2013년 5월 8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찬송가의 연구, 개발 보급사업을 진행할 것을 협약했다. 토마스맹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THE REFORMED UNIVERSITY
미주개혁대학교

학교 소개 1990년에 박요한(Rev.John Park) 박사가 설립한 미주개혁대학교는 철저한 신학 학문 바탕으로 영성훈련, 교회헌법, 예식, 목회실습 등 전통성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캐리대학 코리안 Ph.D 과정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Korean Ph.D)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 (Ph.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과정을 미주개혁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
1. 선교
2. 기독교 교육
3. 글로벌 리더십
특징:
- 윌리엄캐리대학의 졸업장을 받는다
- 한국 지도교수에게 한국어로 공부하게 된다
- 자신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 멘토링과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 윌리엄캐리대학의 도서실과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복수학위 수여 (Ph.D)
▪ 윌리엄캐리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으신후에, 미주개혁대학의 D.Min, D.Miss, Ph.D in Theology (24-30학점)를 추가로 이수할 경우 두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미주개혁대학은 다양한 학사, 석사, 박사학위 및 편리한 통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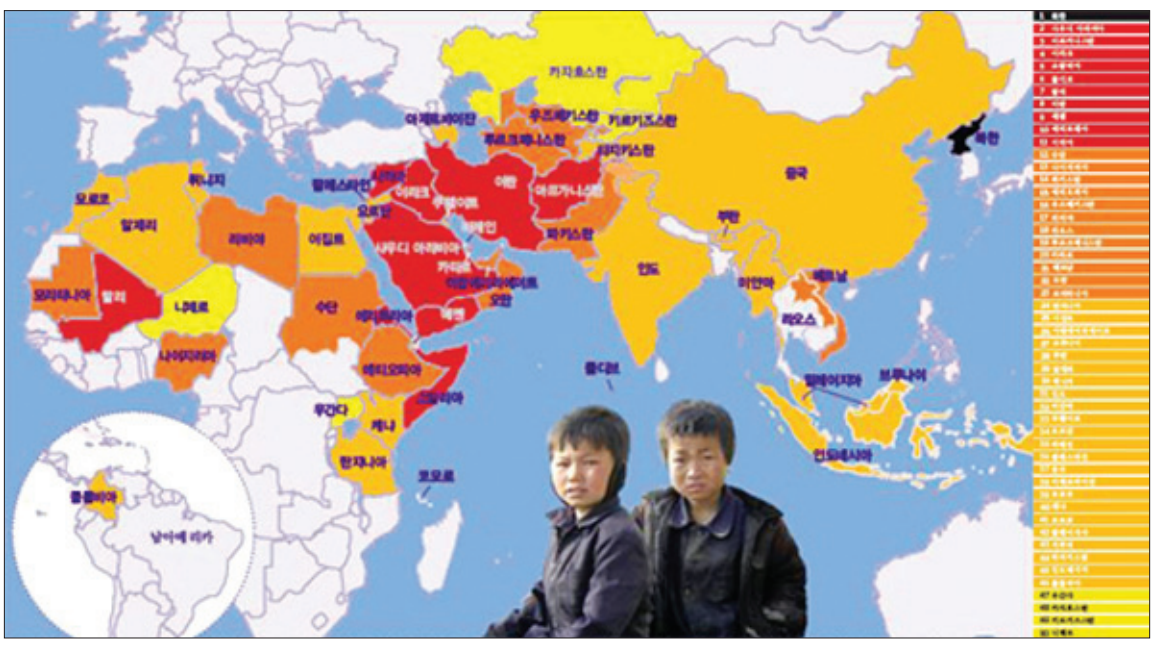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is pleased to join The Reformed University in offering collaborative graduate degree programs. We valu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insights and innovations of missiologist Ralph D. Winter with the Korean community"
Dr. Beth Snodderly (윌리엄캐리대학교 총장)

201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SEVIS I-20 발행
▪ Undergraduate | 대학부
Bachelo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 Graduate | 대학원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ster of Divinity
▪ Graduate | 박사원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Philosophy in Theology
▪ 세부 전공:
- 신학 Theology
- 기독교 교육학 Christian Education
- 유아교육학 Early Childhood Education
- 목회상담학 Pastoral Counseling
- 심리학 Psychology
- 선교학 Missiology
- 세계문화학 Intercultural Studies
- 문예창작학 Classical Literature

2013 여름학기 속성클래스
* 1주일 집중 교육함으로 한 학기를 수료하게 됩니다.
1) 일 시 : 2013년 7월22일(월) – 26일(금)
2) 장 소 : 미주개혁대학교
(4009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3) 수업시간 : 오전 10시~오후6시
* Intensive Program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013년 여름학기 속성 클래스 일정표
7월22일 (월) 선교학 (10AM-12:30PM, 2PM-6PM)
7월23일 (화) 상담학 (10AM-12:30PM, 2PM-6PM)
7월24일 (수) 설교학 (10AM-12:30PM, 2PM-6PM)
7월25일 (목) 기독교 교육 (10AM-12:30PM, 2PM-6PM)
7월26일 (금) 특강 (10AM-12:30PM, 2PM-6PM)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736-6500 | Fax. (213) 736-6504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은 '멸종 위기'



오픈도어선교회가 제작한 '박해국가지수' 세계지도

美 국제종교자유위 경고

박해로 인한 피난민 수

역대 최고 기록

중동 및 이슬람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슬림들의 박해로 이슬람 지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수백만으로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하드와치(Jihad Watch) 책임자인 레이몬드 이브라힘(Raymond Ibrahim)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슬림의 박해는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말했다. 이브라힘은 최근 발행된 책 'Crucified Again: Exposing Islam's New War on Christians'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브라힘은 "오바마 행정부는 아랍의 봄을 비롯한 다른 일들과 관련, 사실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폭스뉴스에 게재한 글에서 "우리는 이슬람 세계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다시 체험하고 있다. 대부분 전체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정복 이전부터 있었다"면서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최근 '이슬람 국가를 벗어나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탈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 우리 시대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집트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브라힘은 최근 이슬람 지역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슬람 세력이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이후, 이라크는 기독교인들을 기다린 운명의 가장 첫번째 표지였다"며 "2010년 바그다드 교회 공격으로, 예배드리던 60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됐으며, 이는 10년 동안 발생한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었다"고 했다.

이브라힘은 "10년 전 이라크에는 최소 100만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오늘날 그 수는 40만명 이하로 줄었다. 이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폭탄을 맞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참수되는 등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시리아에서 이같은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 이슬람이 형성되기 전 기독교인들이 100년이 넘게 살고 있던 지역과 마을에서 납치, 약탈, 참수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마을이 텅텅 비게 됐다. 모스크와 관련된 모든 규범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신성한 의무'임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랍의 봄' 이후 10만여명의 콥틱 교도들이 이집트를 떠났다. 알 카에다와 연계된 무슬림이 기독교인들, 특히 콥틱 정교회를 공격하고 이들을 축출해냈다는 소식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서 뿐 아니라,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 혹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기독교인들의 탈출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이슬람 쿠데타 이후 약 20만명의 기독교인들이 말리를 떠났다. 이브라힘은 "말리의 교회가 뿌리뽑힐 위기에 놓여 있다. 특별히 말리 북부에서는 반군들이 독립적인 이슬람 자치주를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들은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고, 교회 건물을 비롯한 기독교 자산은 뿌리를 뽑거나 파괴했다. 친척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문하고 있으며, 최소 1명의 목사를 참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다른 예들을 많이 들면서 "이슬람의 박해 아래서 고난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소식들은 전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새 책에서도 밝혔지만, 전 세계 (인종, 언어, 문화, 경제 등은 같지 않지만, 오직 이슬람 만을 공유하는) 이슬람권 기독교인들은 멸종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이 극단주의적 이슬람 부활의 진실된 얼굴"이라고 말했다.

"목사가 되기 전엔 몰랐네" 바로 이 10가지

그렉 스티어 목사

미국교회 청소년 사역의 대표 주자인 그렉 스티어 목사가 이번에는 "목사가 되는 것에 관해 내가 몰랐던 10가지"라는 칼럼을 발표했다. 그는 Dare2Share Ministries의 설립자로서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는 사역을 25년간 해 오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청소년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7가지 비법", "몰몬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청소년 사역" 등의 칼럼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그가 제시한 10가지 역시 그렇다. 첫째는 예배 전후에 교회 로비에서 열심히 사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로비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매주 긴장과 두려움을 갖고 새롭고 상쾌한 설교를 들고 강단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긴장과 상쾌함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만 여튼 그렇다.

셋째는 뭔가 약간은 어색한 어깨동무를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친한 척도 잘 하고 친근감 있어야 한다. 넷째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장로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예배 중 의미심장한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졌을 때, 어머니가 큰 소리로 대답할 수도 있다. 목회자의 가족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매주 예배 때마다 믿음을 다짐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평생 갈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 여덟째는 사람들이 교인을 넘어 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는 청소년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은 주일 3번의 설교를 마치고 난 후 오후에 꼭 자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OC목사회, 영상설교세미나 개최 = 오렌지카운티목사회가 지난달 22-25일 세리토스아테시아연합감리교회에서 영상설교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음을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전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기독학술연구원 부설 영상설교 아카데미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금 목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OC목사회 회장 신종은 목사는 "2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유익을 얻고 도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장환 목사, 美 대학 2곳서 명예박사학위 받아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테네시주 칼슨뉴먼대학교에서 지난 10일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학교측은 김 목사의 섬김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목사는 4일 버지니아에 위치한 블루필드대학교에서도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스라엘미션·중동정세 컨퍼런스 열린다

이스라엘 역할과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이해할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찰해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미션과 중동정세 컨퍼런스'가 이달말 작은자교회UBM에서 개최된다. 행사 관계자들은 10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이민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독교인들의 최고 경전인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찰해보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미션과 중동정세 컨퍼런스'가 오는 31일(금)부터 6월 2일(일)까지 애너하임에 위치한 작은자교회UBM에서 개최된다. 세부적으로는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7시,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에 열린다.

31일 작은자교회 UBM교회서

작은자교회UBM 담임 앤드류 김 목사는 10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전달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시 위치시키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스라엘의 역할과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가 이해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사역하는지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에는 메시아닉 유대인연합회 회장인 하난 루카스 목사(하이파베데스다교회), 쥬벤투스 페트룰리스 목사(케힐라트 하마얀 교회, 국가복음협의회 위원), 윌리엄 브조라커 박사(윌리엄케리대학 교수, 미 하나님의성회 유대인선교사, 메시아닉 공동체 설립, 에스겔 오퍼레이션 단체 디렉터), 아이리트 아이퍼트 찬양사역자(유발 예술학교 코디네이터, 메시아닉 워십리더), 야엘 칼리셔 찬양사역자(메시아닉 가수, 워십리더, 메시아닉 유발 예술학교 엔지니어)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주최 측은 "루카스 목사는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하게 설명할 것이며, 쥬벤투스 페트룰리스 목사는 국가 전도위원회 지도위원으로서 이스라엘의 현재 복음 전도 상황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드류 김 목사는 "이번 집회는 대체주의 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많은 한인 교회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에 협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함"이라면서 "이민교회 한인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8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는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샬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발'이 열릴 예정이다. 뉴욕 브루클린은 유대인들이 9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 행사는 Korean Christian for Shalom Israel이 주최하며 KIBI 아메리카가 후원한다. 주강사로는 짐 심발라 목사(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요셉 슐람 목사(네티비야 연구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강사로 참여한다. 행사에서는 예배를 비롯 강의, 거리찬양, 유대인 초청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714) 635-6402, (714) 600-7700

SAM '사랑의 왕진가방' 한국 드라마에 등장

샘의료복지재단(SAM, 대표 박세록 장로)의 '사랑의 왕진가방'이 한국 TV드라마에 등장했다.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드라마 팀의 요청으로 협찬이 이뤄진 '사랑의 왕진가방'은 마지막회에 방영됐다. 주인공 조인성과 송혜교가 등장하는 클라이막스 신에 소품으로 사용된 것. 왕진가방 속에 의약품, 의료품, 의료기구들을 포장해 신의주에 직접 들어가 전달해온 샘의료복지재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봐가며 북한 전역에 왕진가방을 들여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왕진가방은 2004년부터 북한 전역 5000여개의 진료소에 전달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됐던 기초의약품과 의료용품이 담긴 가방이다. 지금까지 약 40만여개가 북한 전역에 배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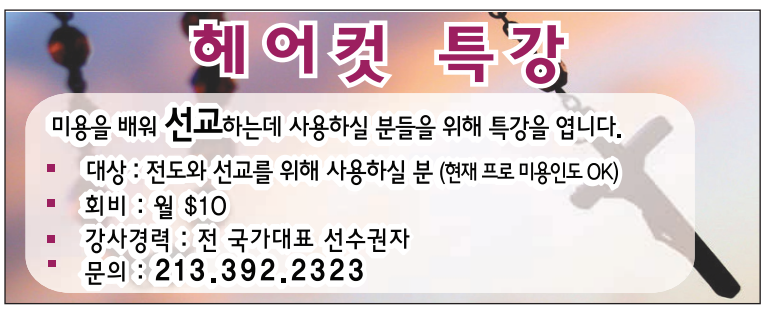
어버이날 맞아 섬김의 장 = 샬롬장애인선교회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한인 어르신들과 LA 한인타운 내 모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어르신 35명이 참석했다. 샬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는 "어버이날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의미있는 시간을 갖게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로드랜드대학 제 14회 졸업식 개최

로드랜드대학교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11일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로드랜드대학교가 제 14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11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열었다. 정가진 박사(교무행정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졸업식은 개식사, 최면의과대학 연혁 소개, 로드랜드대학교 연혁 소개, 총장 메시지, 내빈 축사, 졸업장 수여, 명예박사 수여, 학위증 수여, 표창장 수여, 영예의 동문상, 졸업생 답사 폐회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로드랜드대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교육국으로부터 정식 승인받은 종교대학으로, 현재 신학과, 목회학과, 종교학과, 요가학과, 예술학과, 교육학과, 선교학과, 어린이교육학, 치유학, 의료선교학, 스포츠선교학, 교회음악, 종교철학 사회복지학, 문예창작과, 가정상담학 등 18개 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를 수여하고 있으며, 30여개의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3회 졸업식까지 1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

고린도전서 4: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 교회는 본래 이름이 '에클레시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내신 장소라는 뜻입니다. 즉, 죄악에 찌들며 지옥길로 줄달음치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택하시고 불러내시어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출 수 있는 진리의 교회로 불러 모아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영적인 내세소망을 가꾸는 곳으로만 활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일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군이라는 말은 헬라어 '휘페레타스'로 종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를 이르는 말입니다.

교회의 목자도 하나님의 일군입니다. 목자로 더불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직책을 맡으면 그 시간부터 예수님을 위한 '휘페레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항상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인다는 위협 속에서도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피투성이가 되고,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인데도 밤 중에 실라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시어 감옥이 다 허물어지게 만들고 그를 때린 간수장이 바울에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며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육신의 입장을 완전히 초월해 영적 소망에 취하여 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목양지간에 영적 소망을 더불어 가꾸면서 그 믿음이 진정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내세 소망의 목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목자와 모든 것이 일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이 목자에게 계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기 때문에 공감(共感)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에 성도들도 함께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목자의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을 때야말로 바로 영적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몸이라 했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신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고통에 처해 있으면 하나의 성령이 신경처럼 연결되어 있기에 그 고통을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단에 있는 '비밀'이라는 말은 '무스테리온'인데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공개된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 덜 알려진 부분,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란 이 교회의 직분자들과 직책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과 같이 옛사람과 그 행실은 다 없어지고 생각이 건전하고, 말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함으로 확실히 달라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일군의 자격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 2절의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이스', 우리말로는 집사(執事)로서 하나님의 일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쥐어주신 일로 생각하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온전히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나누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를 손에 잡았다면 그것을 손에서 잠시도 내려놓는 일이 없어야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연결고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직분을 빼앗기고 자살을 하였을 때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그 처참함을 보게 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직분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중심의 정성을 모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내 생활이 그 소원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건강과 물질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린도교회는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와 더불어 세웠습니다. 이후에 고린도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사도바울로 다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린도교회가 목자가 필요하게 되자 베드로도 갔었고, 아볼로도 갔었으나,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영적 지도자를 구분해 가면서 말썽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론을 내세워 그들을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을 만들어 험담하고 패당을 짓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 패당 짓는 것을 없애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3~4절)"고 했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해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죄 지은 것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곳에는 바울을 나쁘다고 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즉,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영적인 은혜 분위기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마귀적 역사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자꾸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최고학부를 마치고 그 시대에 세계가 존경하는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내외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 영적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6절에서는 이런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패당을 일삼고 또 그 패당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모략중상을 하면서도, 자신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성도라고 떠벌리니까 너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네게 주신 성령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고 7절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패당을 짓는 것은 왕초가 되고 싶거나 그 왕초 그늘에서 행세하고 대접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 고린도교회의 입지적 여건은 동양과 서양의 교차지점으로 무역이 가장 성행하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장사꾼들로 돈이 많아 사는 생활 속의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돈으로 교회 안에서도 행세하며, 패당을 일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고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 하였도다"는 말씀은 목자는 제쳐놓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혈기대로 쥐고 흔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이것은 순교를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진실로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원한다 함은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너희가 진정한 자격을 갖추어 가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28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목양지간에 신앙노선이 일치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 신앙지도를 받았던 간에 다시 지금의 교회로 보내셨다면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신앙노선과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체질 신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즉, 같은 성령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 교회적 사명의지에 일치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선교하는 일에 합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 로 몬 대 학 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위로와 도전’ 주는 목회자 아버지학교 LA 9기 열린다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학교 LA 9기 개강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17일부터 3일간
훌러튼장로교회서 개최
성경적 접근으로
아버지와 남편 본질 찾는다

두란노 목회자 아버지학교 LA 9기가 오는 6월 17-18일 오후 2시부터 9시 30분까지, 23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3일에 걸쳐 훌러튼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남성·영성·사명을 소주제로, 강의와 영상물 시청, 나눔과 간증 그리고 간단한 예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강사는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정대성 목사(덴버뉴라이프교회), 윤덕곤 목사(얼바인브릿지교회) 등이 나선다.

주최 측은 이와 관련 “이번 아버지학교는 ‘파더스데이(Fathers day)’ 다음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9기는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아버지학교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참석대상은 목회자 및 전도사, 신학교 졸업생이며, 특별히 오렌지카운티 지역 목회자는 참가비 절반을 OC목사회에서 후원한다.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인 동시에 목회자인 이 시대 사명자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며, 목회에 지혜와 활력을 불어넣는 장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상이 사역자가 되는 이유에는 사역자들 간에 사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며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위로와 도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덕곤 목사는 “커리큘럼이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아버지의 본질을 찾게 해주도록 짜여져 있다”며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는 아버지들이 긴장하면서 강한 척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눈물을 많이 흘린다. 아버지와 남편이 어떠한 역할인지 알게 돼 수업을 수료한 이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박세헌 목사는 “지금까지 아버지학교에 참가하고 봉사를 거듭하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변화되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다”고 했다. 또 아버지학교 한 관계자는 “목회자들이 부부생활을 이해하는 귀한 장이 되면서 목회자의 리더십과 가정이 회복되는 간증들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서울두란노 서원에서 1995년 시작된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세계 30여개국 180여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미주에서는 2000년 포틀랜드에서 시작해 LA, 뉴욕, 시애틀, 달라스, 애틀랜타 등 40여개 지역에서 상시로 개최해 왔고, 2만여명이 넘는 아버지들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등록비는 100불이며, 6월 10일 이전에 등록할 경우 80불이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70명.

▷문의: (213) 382-5454, (562) 833-5520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목회학 박사과정 안내

Good News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LIFORNIA
142 년 전 (1871년) 설립된 신학교
A MEMBER OF GTU & ATS

DOCTOR OF MINISTRY PROGRAM
2013 년 6월 쎄미나에 한인 목화자 초청
Jun.17,2013 – Jun.28,2013 (2-WEEK SEMINARS)
Mon – Fri, 9:00 AM – 5:00 PM

First Course : Ministry for 21st Century, Dr. Hyo Shick Pai and Dr. Hoi Chang Kim
Second Course : Ecclesiology, Dr. Won Young Sohn
Visiting Professors Dr. Bob Wallace, Dr. John Harbison, Dr. Chun Il Cho, Dr. Chung Kuhn Lee
Conract Persons Dr. Hyo Shick Pai: Administrator (661) 755-5442 drhyopai@gmail.com
Dr. Hoi Chang Kim: Admissions Advisor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Los Angeles Campus ABSW
Dr. Paul Martin, President of ABSW
760 South Westmoreland Avenue, Los Angeles, CA 90005-1499
More Information: www.absw.edu

제 7차 사과나무(구 방주교실) 학생모집

LA 거주하는 한인 초·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은혜의방주교회에서 개최해 온 ‘방주교실’이 명칭을 변경해 ‘사과나무’ 교실로 거듭난다.

주최 측은 바뀐 명칭에 대해 “사과나무란 ‘사랑과 나눔으로 크는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13년 사과나무 교실은 각 학교 여름방학이 빨라짐에 따라 약 2주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7차 사과나무’ 교실은 오는 6월 19일(수)부터 7월 31일(수)까지 이어진다. 주최 측은 내달부터 시작될 사과나무 교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행사를 섬겨온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바마 대통령 자원봉사 금상을 받기도 했다. 자원봉사 신청은 웹사이트(arkschoolgac.blogspot.com)에서 하면 된다.

- 원서 배부 및 접수: 5월 13일(월)-5월 26일(주일)
- 발표: 5월 28일(화)
- 등록: 5월 31일(금 오후 7시), 6월1일(토 오전10시, 오후 7시)

▷문의: 323-733-7191(교회), 213-700-3089(디렉터)

▷은혜의방주교회 주소: 2129 Venice Bl, Los Angeles, CA 90006

월드미션大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월드미션대학교는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설명회를 7월 11일 오후 7시 동교 6층 학생라운지에서 갖는다. 설명회에 참석한 자에 한해 입학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213) 388-1000

심진구 목사 장녀 결혼식

미주목자교회의 주축 임원인 심진구 목사(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의 장녀 심준영(영어명 에스더) 양의 결혼식이 내달 1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213) 590-9191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져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요. 우리나라 탑프로 95%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English (초급 영어)

▶John: Hi. My name is John. (여보세요. 나의 이름은 쟌 입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Maria: My name is Maria. (나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You have a biblical name, John. (쟌, 당신은 성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John: You, Too. It’s nice to meet you, Maria. (당신도요. 마리아, 만나서 기쁩니다.)
▶Maria: I am glad to meet you, too, John. (쟌, 나도 역시 당신을 만나니 기쁩니다.)
▶John: I must go now to my office. (나는 내 사무실로 가야 해요).
I have another appointment. (다른 약속이 있거든요.)
▶Maria: See you again, John. (쟌, 다시 봐요.)
▶John: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Maria: You, too. Have a good one. (당신두요. 좋은 하루 되세요.)

English (중급 영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John 1:1-3).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요한복음 1장 1-3절〉)

English (고급 영어)

No one can be perfectly free till all are free; no one can be perfectly moral till all are moral; no one is perfectly happy till all are happy (Herbert Spencer).
(모든 사람이 자유로울 때까지는 아무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때까지 아무도 도덕적으로 살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때까지 아무도 행복해질 수가 없다.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영국의 철학자, 생물학자, 사회주의자로서 진화론을 다윈(Darwin)보다 먼저 제창했다. 빅토리아여왕 시대의 인물로 83세에 세상을 떴다.〉)

자료 제공: 배효식 목사

▣ 배효식 목사 “〈3단계 영어교육〉 연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배효식 목사(사진)는 30여년간 영어교육을 해 온 영어교육 전문가다. 그는 〈3단계 영어교육〉 연재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남겼다. “오늘날 미국생활에서 영어는 필수다. 평생을 영어교사로 살아온 경험을 살려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한인들을 돕고 싶은 생각에 본 연재를 시작하는 바이다. 가끔 영시(詩) 감상을 기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영어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시의 내용을 잘 감상하고 있다는 몇몇 분들의 피드팩도 있어 기쁘다. 아무쪼록 본 연재를 통해 독자들의 영어실력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FREE DELIVERY
빠른 미주 전지역 무료배송!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www.Gosmartworld.com
주 7일 OPEN
10 A.M - 7:30 P.M
L.A 총판 딜러
로데오 갤러리아 몰안
GE Capital
$192/월 무이자 2년
Tax 포함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대표전화: 323-454-7872
5 year WARRANTY
명품 후지타만에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FUJITA
KN9003 / 2013 최신형!
BEST SELLER! 소비자 만족 1위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으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Heating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전문 타이 스트레칭!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허리 디스크, 자골 신경통 교정에 최고!
에어 전신 스윙 안마
무료 체험 환영합니다!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엄청 시원해요!
Zero Gravity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단 강약 조절를 선택할수 있음!
Reg. $6,499.00
풀옵션!
머리부터 발 끝까지
전문 안마사에 안마를 원하십니까?
비교하세요 성능과 기능을 - 비교하세요 품질과 가격을
FUJITA KN9003 $4,200
FUJITA 을 선택한 순간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누릴것입니다
바른 선택은 구입후 후회나 속상함이 없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5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스마트 월드에서 드리는 특별한 선물 이벤트!
FUJITA 2013
Model: KN9003
Regular: $6,499
풀 옵션 전신 마사지 체어
sale
$4,200
BEST SELLER!
Fujita KN9003 구입시
$600 상당에
Solar Handel
수지침 원적외선 손마사지 공짜 선물!
FUJITA
Model: SMK9100
Regular: $6,999
노약자 및 재활치료용
sale
$4,300
Fujita SMK9100 구입시
Heaven Fresh
알레르기 / 먼지 / 진드기에 해결사!
5 단 필터 공기 정화
$300 상당에
음이온 공기 청정기 공짜 선물!
Osaki
3 year WARRANTY
Model: 7200H
Regular: $4,600
스포츠 전문용
sale
$3,795
하체 운동에 최고!
$280 상당에
로데오 승마 공짜 선물!
카멜레온 신비의 음이온 핸들 커버
안전 운전자의 필수품!
건강 팔찌 보다 30배 뛰어난 효능!
CAMELEON
COMFORT POWER GRIP
음이온 수치
2022
$30.00
세계 최초 특허품!
이런 분들게 특히 좋습니다
졸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
운전중 피곤하신 분
어깨나 팔이 아프신 분
손 관절로 인하여 아프신 분
차에 찌든. 담배 냄새 제거를 원하시는 분
로데오 승마
Vitality - 지방분해 운동기구
접이식 자전거
EZ- BIKE
Heaven Fresh
음이온 공기 청정기
화장실 / 부엌용
거실용 / 방
방 / 거실
발 마사지
스윙 하반신 스윙
진동 발 마사지
Vortex water 육각수
STEP & STEP
EZ-CYCLE
이코노 하이 여행에 필수품!
Figure Trimmer
NINJA 어깨 등 마사지기

나이스크 "제자를 넘어 사도의 리더쉽으로"

'나이스크 심포지움 13' 강사진들을 비롯 청년들이 대회 일정을 마친 뒤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나이스크(예배회복운동,Nyskc) 헌신자 그룹을 위한 '나이스크 심포지움 13' 대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알칸사주 리틀락에 위치한 알칸사제자들교회에서 개최됐다. 미전역에서 MS(Ministries Staff), MS2, MAS(Ministries) 등 나이스크 헌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GTS(Goshen Theological Seminary) 강사진의 강의 및 설교, 성경공부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첫날 준비위원장 데이빗 전 GTS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으로 막을 올린 대회는, 대회장 에스라 김 목사(GTS 교수)의 개회선언과 인사말에 이어 오프닝 워십 순으로 이어졌다.

나이스크월드미션(NWM)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는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전하면서 "모세에게 있어 인생의 1/3은 준비하는 과정, 1/3은 기다리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호렙산에서 불꽃의 광경을 볼 수 있었고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면서 "우리는 늘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지만 모세와 같은 준비가 부족하다.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목사는 교회(敎會)라는 한자를 보면 모여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니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라면서 "불같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며 영이시니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무언가 노력을 해야 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고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의 광경을 본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며 "신앙의 신비는 중요한 것이지만 신비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또한 계시가 중요하지만 예언이나 계시 혹은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생활로는 바르게 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참된 예배자"

나이스크 헌신자들의 축제이자 헌신의 훈련 첫날 저녁 성회는 데이빗 전 교수의 인도 하에 나이스크 멘토(MAS)들의 찬양인도에 이어 디모데 황 GTS 교수가 기도했으며, 이어 에스라 김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에스라 김 목사는 설교에서 "참다운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감격과 열정이 식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에스라 김 목사는 이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참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된다"며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영역이며, 예배자가 중심에 새겨야 할 태도"라고 증거했다.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라"

"제자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단하라!"

둘째날 리더십 아카데미 발제에 나선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는 '관심과 무관심(롬8장 5-8절)'이라는 주제 하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육신을 좇는 자요 세상에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이 지대하나 세상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센 목사는 이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무관심'은 '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더십 아카데미 두 번째 강사로 보아즈 루 GTS 교수가 나서 '나는 어떻게 하여야 성령 충만할까'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른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한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 리더들이 되라"고 권면했다.

루 교수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순복해야 그 분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실 수 있다(롬8:9, 엡1:13-14)"면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성령님이 장악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강사로 나선 디모데 황 교수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교회는 신랑이며 나는 신부다. 교회는 주님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지체다. 이러한 확실한 위치(지위)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보혈로 세워진 것이므로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야말로 진정한 섬김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강사로는 데이빗 전 교수가 나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 부름받은 헌신자(MS, MS2, MAS)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데이빗 전 교수는 그는 "교회에는 성경적으로 내려오는 직분이 있는데 장로, 집사, 권사 혹은 권찰 및 구역장 등이 있지만 MS, MS2, MAS는 특별히 교회의 직분과는 별도로 나이스크 월드미션에서 각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예배회복운동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라고 했다. 이어 "MS, MS2, MAS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 즉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나이스크의 슬로건(Theme)을 이루는 직분이다. 이에 따라 첫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둘째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 셋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이 전제되어 세워진 일꾼이며 헌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활을 감당함으로 예배회복을 위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강의는 '청지기론'을 주제로 데이빗 강 목사가 나섰다. 약 2시간에 걸쳐 중간중간 찬양하며 부흥회를 하듯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의가 진행됐다. 그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은 없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며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임을 분명히 하자"고 하면서 청지기의 성경적 개념과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여섯 번째 강사로 나선 임마누엘 최 GTS 교수는 '나는 나이스크무브먼트에 어떻게 헌신할까'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를 선언, 결단하자고 도전하면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이 살았으니 거저 받은 목숨, 주님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자"고 했다.

위에 언급한 강사 6명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장내 곳곳에서 헌신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특색은 지난 2012년 LA에서 열렸던 때와는 달리 사역의 실제적 자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뤄 보다 구체적인 리더십 훈련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성령 충만하라"

대회 기간 중 저녁 마다 성회를 가졌는데 첫날은 에스라 김 목사가, 둘째날은 엘림 김 GRI 교수가 이 세상의 삶을 전쟁으로 이해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것을 도전했다.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셋째날은 랜디 주 GRI 교수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수1:7-9)'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MS MS2 MAS들이여 형통하라"

"헌신자들이여 모든 일에 있어 형통하라. 특히 MS, MS2, MAS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형통케 되리라"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더 잘 아신다"며 이에 헌신자와 사명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교를 끝맺었다.

"2014년도 대회 개최지는 뉴욕"

대회 마지막 날 폐회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에스라 김 교수는 "믿음은 개인의 거룩이고 사랑의 공동체 차원의 거룩이며 세상에 대한 헌신의 거룩이다"며 거룩과 헌신에 관해 증거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의로운 왕이시며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기도 하며,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며 이것이 곧 거룩함이다. 또 이것이야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열정과 진정한 부흥이 사라져 가는 이 시대, 나이스크 예배회복운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면서 "각자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산 제물"이 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대회에 이어 내년도 대회 개최 장소가 뉴욕으로 결정됨에 따라, 참석자 전원 차기 대회를 기약하며 대회장 에스라 김 목사의 폐회선언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가정의달 맞아 어르신들 '신바람'

실버아카데미가 주최한 '신바람 행복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단체촬영에 응하고 있다.

실버아카데미 '신바람 행복잔치'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9일 실버아카데미(원장 곽소건 목사)가 효도 행사의 일환으로 '신바람 행복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 잔치는 손에 손을 잡은 노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행사장에 입장함으로 시작됐다.

행사는 1부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 마음', '비둘기 집' 등의 노래에 이어 따뜻한 합창과 시니어를 위한 율동, 그리고 아침운동 시간으로 이뤄졌다. 2부에서는 김철정 씨의 열창과 하모니카 독주, 해피댄스 등 회원들의 장기자랑이 마련됐으며, 3부는 사랑의 선물 증정과 격려의 시간,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실버아카데미 곽소건 원장은 "훌쩍 커져버린 자녀들이 이민생활에 너무 바쁘다보니 어르신들을 찾아뵙지 못해 어르신들이 때로는 외로움에 잠겨있을 수 있다"며 "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 서로 보듬어주고 격려하며 포근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며, 이민생활의 곤고함을 떨쳐버리는 신바람 나는 시간이었다고 기뻐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실버아카데미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과목은 노래교실, 생활영어, 댄스,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시사정보, 교양강좌 등이 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실버아카데미는 순수 목적의 도네이션을 기반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관련 사항을 비롯한 제반 정보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으로 제공된다.

▷실버아카데미 주소: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전화: (714) 329-7906
▷웹사이트: www.silveracademy.org

시니어 위한 오바마케어 메디칼세미나 개최

하나건강보험 데이빗 강 대표 강사로 나서
"소득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점검해야" 강조

2014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Act)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1일 주님의기쁨교회(이상호목사)에서다.

본보 후원으로 열린 이 세미나는 내년에 시행되는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과 미가입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 등으로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데이빗 강 하나건강보험대표는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이라며 "연방빈곤지수(100%=개인 830불, 부부 1407불) 138%부터 400%에 해당하는 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매우 잘 설계된 정부의 기본 건강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데이빗 강 대표는 이어 "개인의 1년 소득이 44,680불, 4인가족 기준으로 92,200불 미만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텍스 크레딧(Tax Credit)과 정부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금액 이상의 소득자는 건강보험료가 150%까지 인상될 수도 있다"면서 "자신의 소득과 형편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건강보험 데이빗 강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면서 약 2시간 가량 계속됐다.

한 시니어 참석자는 "정말 도움이 됐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금전적인 손해도 막을수 있는 세미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보와 하나건강보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오바마케어 메디칼세미나'의 개최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는 전화 (213) 739-0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규 기자

김문훈 목사 "먼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예향선교교회 일일 부흥성회에 주강사로 초청된 부산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남감찰회
지역복음화 위해 6일간 릴레이 집회

예향선교교회(김종호 목사)가 김문훈 목사(부산포도원교회) 초청 일일 부흥성회를 11일(토) 오후 7시 30분에 열었다.

이날 김문훈 목사는 이민 성도들이 먼저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영혼을 전도하기 전에 전도자는 먼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 예배의 감격이 떨어지면 고착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먼저는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기르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성회는 LA 복음화의 일환으로 기독교 미주성결교회 LA지방회 남감찰회가 주최한 것으로, 지난 7일부터 6일에 걸쳐 임마누엘선교교회를 비롯 나성성결교회, 미주성결대학교, 둘로스선교교회, 갈릴리선교교회, 나성성결교회 등지에서 잇달아 열렸다.

강사로 나선 김문훈 목사는 CTS TV 밀레니엄 특강 강사이며 CBS TV 파워특강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에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Youth예배 오전 11:00 / 어린이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2:45 / 금요기도회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 유초등부 오후 12:30 /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 새벽 오전 5:30 (월-토) /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2:30 / 성인 EM예배 오후 2:00 /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 찬양예배 오후 3:30 /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EM예배 오전 11:3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0:00 /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0:45 / 대학부 오후 1:00 / 성경공부 저녁 7:30(목)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11:00 /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 2부 오전 6:30 (월-금) /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후 1:00 /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 주일학교 오후 1: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중고등부:주일 오전11:00 / 청년부: 주일 오후 1:30 / 새벽예배 화~토, 오전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금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재복음선교교회
온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주일 EM예배 오전9:30 / 수요예배 오후7:00 /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 토 오전6:00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CA90006
T. (213) 388-1927,388-2105

박승부 장로
1기,2기,3기 수료생배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손만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09:00 / 2부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10: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푸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영어예배 오전 10:0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50 / 3부예배 오후 12:00 / 4부예배 오후 2:22 / EM예배 오후 2:00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25 /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모습,성경적코이노니아,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 3부예배 오후 1:00 /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금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 2부예배 오후 2:00 /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젊은이 예배 오후 2:22 / EM예배 오후 2:00 /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 및 선교회

LA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휄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마원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예배 오전11:00
유치부예배 오전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1:00
청년예배 오후2:00
수요예배 오후7:30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Rancho Cucamonga,CA91730
T.(909) 945-9191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전길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청소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후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10:00
Toddler - Youth 오전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성현경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00 (토)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원망' 대신 '감사'로, '무조건의 행복' 얻은 김희아 씨의 이야기

"내 이름은 '예쁜 여자' 입니다"

계집 희(姬), 예쁠 아(娥). '예쁜 여자'라는 뜻의 '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아이는, 행운의 숫자 7이 두 번이나 들어가는 7월 7일에 태어났다.

그러나 모반증으로 얼굴의 반이 붉은 점으로 덮인 채 태어났고, 보육원 앞에 버려진 고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오후 느지막이 우리는 반장네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신나는 하루였죠. 우리 뒤로 대문이 닫혔어요. 골목을 빠져 나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반장 집에 있는 강아지가 부러웠어요. … 사관님이 다시 물으신다면 전 천국을 반장네 집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곳. 혜천원 아이들이 '가정집'이라고 부르는 곳.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죠. 어쩌면 바로 제 이웃이 모두 천국이었는지도요."(116~117쪽)

스물다섯 꽃다운 나이에는 나머지 얼굴의 반에 상악동 암이 발병해 얼굴뼈를 들어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방송 인터뷰 차 찾아간 대구역에서 그녀를 처음 본, KBS '강연 100℃' 안진 PD는 이렇게 전했다.

"그녀를 생각하면 강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다. 방송 인터뷰 차 찾아간 대구역,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정지한 듯 서있던 그녀. (중략) 그녀에게 전해들은 사십여 년 인생은 찰진 고통의 시간이었다. 고독과 소외, 절망과 결핍, 삶과 죽음의 갈림길까지. 그녀에게는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며 움켜쥐고 태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부모 형제, 이름, 정확한 출생의 기록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얼굴에 커다란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했다.

"좌절과 고통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찾은 '감사'가 무거운 삶을 가볍고 평탄하게 했으며, 꿈을 키우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6쪽)

"'저 얼굴로 어떻게 살겠노, 나 같으면 못 산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을 때도, 식당 제 테이블 옆에서 밥 먹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을 볼 때도 웃을 수 있었던 것도, 눈물을 닦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의 힘'이었습니다. 저만이 어울리는 얼굴이고, 이 아픔 또한 저

KBS '강연 100℃', '여유만만' 등에 소개돼, 전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김희아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담은 첫 에세이집.

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 자신을 위로하였습니다."(6쪽)

아픔과 상처를 '감사와 희망'으로 딛고 일어서 자신의 삶을 바꾼, '예쁜 아이' 김희아.

이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과 예쁜 두 딸과 함께, 예전 살던 고아원 아이들이 '가정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엄마'가 되면서 자신을 버린 엄마에게 '낳아줘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그녀는, 방송에 출연해 "엄마, 그리운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도 전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안진 PD가 말한 것처럼 '무조건의 행복'인 듯하다.

그는 "만일 우리 인생에 고통의 총량이 있다면,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행복이다. 무조건의 행복일 것"이라고 했다.

말할 수 없이 쓰리고 아팠을 '상처'와 그 '고통'에 '감사'한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움켜쥔 듯하다.

그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얻었다 잃었다 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이 행복을 움켜쥔 그녀가 부럽다.

기독출판계도 '고전의 재발견' … 톨스토이 단편집

일반 출판계처럼 기독 출판계에도 '고전의 재발견' 흐름이 계속될까.

최근에는 출판계 뿐 아니라 문화계 전체에서 '고전'이 각광받고 있다. 이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영화화돼 큰 인기를 끌었고,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기독 출판계에서도 고전은 브니엘출판사나 생명의말씀사 '리폼드 시리즈' 등에 의해 꾸준히 출간되면서 사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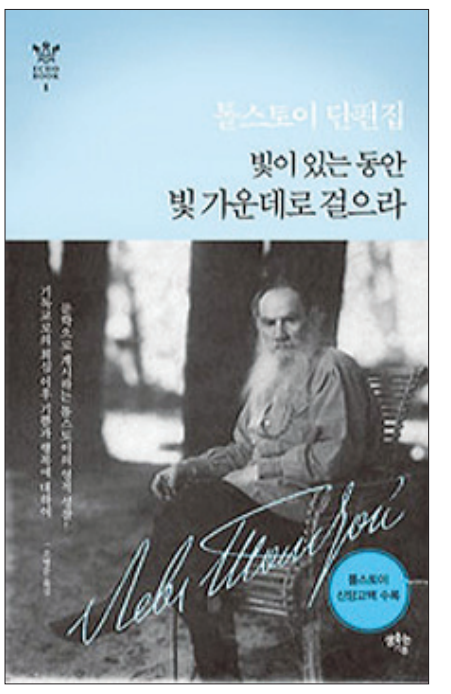
특히 '톨스토이'의 경우 〈안나 카레리나〉의 영화화와 함께 전문번역가 박형규 교수가 내년 말까지 톨스토이 전집 18권 출간에 도전하고 있다.

기독 신생 출판사인 '샘솟는기쁨'에서도 최근 톨스토이 단편집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를 펴냈다. 톨스토이의 회심 이후 작품들 8편을 '삶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로 각각 분류해 실은 것.

'삶'에는 〈있는 자들의 한가한 대화〉,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일리야스〉, '사랑'에는 잘 알려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음'에는 〈세 은자〉, 〈회개하는 죄인〉,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지만 기다리신다〉 등이 각각 담겨 있다.

단편들에 앞서, 톨스토이가 1884년 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전했다는 '신앙고백'도 들어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같은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구원받았다. … 죄인과 같은 나는 악하게 살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대부분의 주위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것을 보았다. … 마치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는 어떤 힘에 의해 그런 고통과 악의 삶에 못 박혔다. 이 모든 비극에서 나는 죄인과 같았다. …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부터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생과 사가 악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나는 절망 대신에 죽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했다."

글을 번역한 조병준 씨(감신대)는 "톨스토이는 작품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



톨스토이 단편집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로 걸으라

인지를 우리에게 전한다"며 "그것은 고차원의 신학적 설명이나 수도원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경건주의가 아닌,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손을 뻗어 실천할 수 있는 사랑과, 빵 한 조각을 나누고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손길을 말한다"고 전했다.

강영란 '샘솟는기쁨' 대표는 "회심 이후 톨스토이의 단편집은 문학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반 기독교 고전과 조금 구별되도록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저자를 발굴해내고 싶었다"며 "일반 출판사에서 오래 근무하다 기독 출판사를 새로 시작해 기독교인 독자들 정서를 잘 알지 못하고, 단단한 기획력을 갖고 준비한 게 아니라 아직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강 대표는 "앞으로 파스칼처럼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에서 잘 다루지 못한 저자들의 콘텐츠를 더 발굴하고 싶다"며 "(종교개혁 이전) 가톨릭 고전들이 개신교에는 그리 많이 번역돼 있지 않은데,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옛 복음성가, 40~50대에게는 '향수' 청년에게는 '신선함'"

[찬양과 경배 25년, 그 빛과 그림자] 어노인팅 박기범 대표

1997년 '동시대적 교회 음악과 하나님 나라'를 모토로 한국에서 시작된 '찬양과 경배' 운동이 어느덧 25주년을 맞았다. 본보는 이를 기념해, 찬양계의 리더들과 함께 찬양의 역사와 현실을 살피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노인팅(대표 박기범) 10집 〈기름 부으심〉의 인기가 뜨겁다. 특히 수록곡 중 〈우물가의 여인처럼〉은 장기간 CCM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959년 리차드 블랜차드가 작곡한 곡으로 과거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불렸지만, 이 시대에는 '잊힌 복음성가' 중 하나였다.정말 그런 책입니다. 평범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성공을 꿈꾸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강한 도전을 안겨줍니다.

어노인팅 10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 헛되고 헛된 것들을 / 그때 주님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절 가사〉

40~50대 연령의 성도들에게는 친숙한 곡이지만, CCM에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거의 처음 접하는 생소한 곡이다. 사실 '잊힌 복음성가' 중에는 은혜로운 곡들이 많이 있으나, 이 시대에 다시 불리는 것은 쉽지 않다. '동시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어노인팅은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다시 불렀고, 청년들은 여기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과거의 복음성가가 현재의 청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깊다. 1절은 원곡 그대로 불렀으며, 2절은 리듬의 변화만 줬다. 10집 앨범을 기획한 어노인팅 박기범 대표를 만나 기획의도와 소감을 들었다.

박기범 대표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앨범에 넣은 이유는?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예배의 기초라고 생각했다. 예수께 '목마르다'고 고백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했다. 작곡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시대에는 또 다른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 선교환경은 좋아졌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더욱 깊은 시대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다. 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청년들에게는 신곡과 같이 신선함을 선사하는 것 같다."

-'잊힌 복음성가'를 다시 앨범으로 제작할 계획이 있는가.

"큰 관심을 갖고 옛 성가들을 살피고 있다. 교회에 근대예배가 적용되면서 세대 간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 CCM은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 하고, 찬송가는 젊은 친구들이 재미없어 한다. 옛 복음성가를 편곡해 세련되게 만들면 청년들에게도 보다 풍성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집회와 앨범 녹음도 기획하고 있다."

-CCM의 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정상적이다. 예배곡이 기독교음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 주일예배 드리고 6일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일상의 감정을 전부 예배곡이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예배곡 이외의 기독교음악이 분명 존재해야 하는데, 한국의 기독교문화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크리스천이 맞이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하다. 그런 기독교 음악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워십팀이 아닌, 개인 찬양사역자들의 활동은 주목받기 어려운 것 같다.

"조심스럽다. 퍼포먼스적인 요소도 예배음악 중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문화 활동으로 예배를 찾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다. 마치 일반가수의 신곡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과 같이, 순수하게 기독교음악을 기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교회가 기독교음악 문화를 어색해 하는 것이다. 신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독교 음악인을 배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어노인팅의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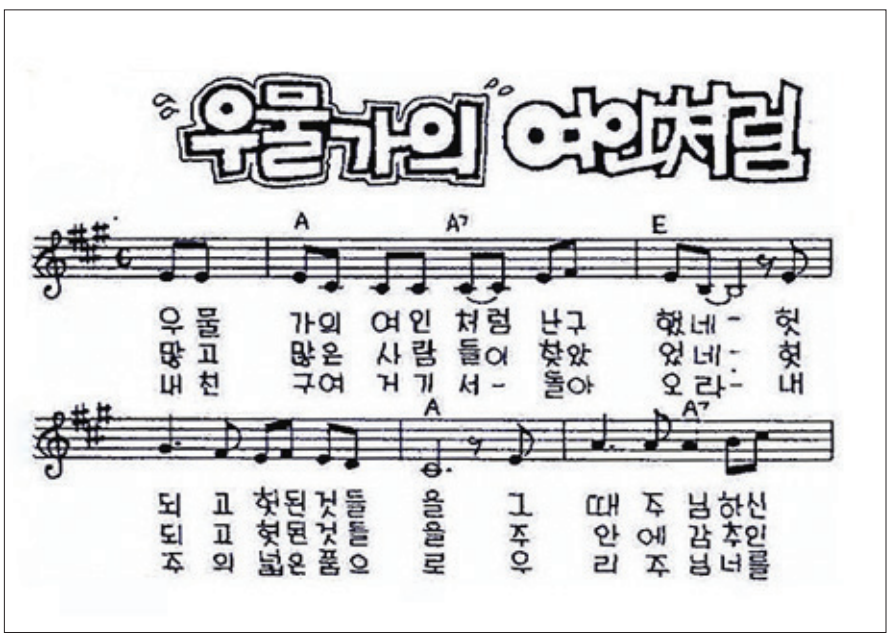
"어노인팅은 드러내기 위한 노래보다는, 예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들고 있다. 10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다."

-찬양사역자의 삶이 어렵지는 않나.

"홍대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그저 자기 직장 다니면서 모여서 연습하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것이다. 앨범도 판매되지 않는 암흑기라고 말하지만,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천에게 성공이란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비록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독교 음악인이 대중음악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크리스천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대중음악계에 가서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매우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악보 앞부분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2:45 /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 2부예배(EM) 오후 1: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20 / 2부예배 오전 9:00 / 3부예배 오전 11:00 /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 장애인예배 오전 11:00 /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민경엽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11:00 / 영 유아부 오전 11:00 / 유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 EM,대학부 오후 1:30 /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흩어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박용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1:30 /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 Youth 예배 오전10:30 /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 2부예배 오전10:00 / EM/Youth예배 오후12:00 / AWANA 오후12:3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 오전6:00(토) /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 EM영어예배 오후 12:45 /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예 친 교 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2630-A Townsgate Rd. Westlake Village,CA 91361
T.(805) 557-1122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 2부예배 오전 11:00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방익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 중.고등부 오후 3시 /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 금요철야예배 오후8시 / 한국학교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 (949)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본당) / 2부예배 오전 10:00(미라클센터) / 3부예배 오전 11:55 (미라클센터)
EM예배 오후 12:15 / 수요예배 오후 7:00 /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라클센터: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H마켓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562-677-7777, F.562-677-7778/ ilovecpc.org

한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30 /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오전6:00 / 열린예배 (수) 오후 7:30 / 성령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 주일학교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지 샤론 담임목사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오후 7:30 /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화, 생활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인도받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 주일학교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8:15 / 주일2부예배 오전10:00 / 주일3부예배 오전11:45 /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찬양 오전 11:15 /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 청년부예배 오후 2: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 2부예배 오전 09:30 / 3부예배 오후 11:30 /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 토요일 오전 06:00 /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박세록 대표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 주일묵상예배 오후2:30 /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 치유예배 목요일 7:30 / 금요철야예배 오후 8:00 / 토요 EM예배 오후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562-903-2600, Cell:714-600-7700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허귀암 담임목사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윈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가정의 달 사랑 특별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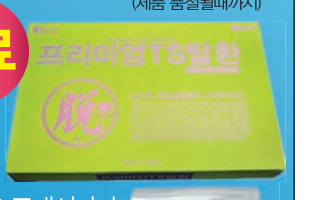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환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변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절될때까지) 무료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6병 ~~$280~~ $100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척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싸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트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음.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혀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쉬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올림픽과크렌셔 북동쪽 코너 단층 상가건물)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소변이 흐른다구요?
방광염이 있나요?
세종요로청보감으로 해결하세요

요로건강 전반 기능개선에 탁월한 효과

요즘 한인건강 관련 화제의 중심에 세종요로청보감이라는 제품이 있다. 바로 요실금과 오줌소태(방광염), 빈뇨증, 전립선 이상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건강기능식품, 세종요로청보감이 바로 그 제품이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세종요로청보감은 주(主)성분이 파크란크렌베리인데 이는 일반 크렌베리의 100배 이상 농축한 크렌베리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원료로서 그 효능이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호박 추출물을 비롯한 마그네슘, 비타민C 등 신장과 방광 등 요로건강 전반의 기능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원료들이 함께 농축돼 있다.

특히 주된 원료를 구성하는 파크란 크렌베리는 앞서 미국 크레이튼대학의 임상을 통해서도 요로건강의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세종요로청보감은 미 식약청(KFDA)으로부터 요로건강의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기에 세종요로청보감의 제품박스에는 한국 식약청의 인증마크와 기능성(효능)이 표기돼 있어 누구나 믿고 구입할 수 있다.

이미 LA는 물론 뉴욕·뉴저지, 시카고 등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요실금 및 오줌 소태 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참고: 관련 정보 웹사이트 www.sejongbiotech.us〉

▶ 하루 8번 이상 소변을 보시는 분, 잠을 잘 때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시는 분

▶ 방광염(오줌소태)로 힘들어 하시는 분

▶ 간혹 혈뇨를 보시는 분이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분

▶ 요실금으로 가벼운 자극에도 소변이 흐르는 분

▶ 출산이나 비만 등 성인병의 이유로 소변민감성이 큰 분

▶ 전립선비대증 및 남성요실금에도 탁월한 효능 (가격: 2개월 한박스 195불)

▷문의:세종바이오텍(1-877-256-7671

"체내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혈액이 잘 흘러야 영양과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당뇨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을 비롯해 혈관 내 혈전이 있어 혈액순환장애 증상이 있는 분들은 '혈관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은 세종송보감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당뇨수치를 체크하시면서 꾸준히 드시고, 당뇨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나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분은 작은 박스로 1년에 2차례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세종송보감은 솔잎을 증류 농축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의 임상 및 식약청이 공인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리고 세종송보감은 강력한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혈관 내 쌓인 포화지방산을 깨끗이 녹이고 중금속이나 불순물들을 녹여서 변으로 배출합니다. 특히 세종송보감의 원료인 솔잎의 리모넨이라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백년이 지나도 썩지않는 스치로폴을 녹이듯이 혈관 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 여러분은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식품을 구별하시나요? 하루에도 많은 제품들에 대한 광고가 쏟아지고 이것이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건강식품은 공인받은 제품과 아닌 제품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간단한 구별법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건강식품 제품박스에 '어디 어디에 좋다'라는 기능에 대한 내용이 표기돼 있는지를 보시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공인받은 마크가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품박스에 효능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은 최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혈전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혈전증이란 혈관 내에서 응고된 혈액 덩어리, 즉 피의 찌꺼기라고도 하고 피떡이라 불리우는 혈전이 혈관의 흐름을 저지하는 병적 현상을 말합니다.

혈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모세혈관 내에 젤리 같은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있어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혈관의 흐름을 저지하는 증상이 심해질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겨우내 춥다며 외출을 삼가고 방 안에만 웅크리고 운동이라곤 조금도 않고 있다가 따뜻한 봄이 되자 겨우 외출 해서 축구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합 전반이 끝나고 휴식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숨이 막힐 정도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그 분은 젊은 나이에 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혈전은 평소에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과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 등을 할 때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혈액이 깨끗하고 맑아야 하는데 혈전증 환자들이나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혈액은 대개 걸쭉하고 끈끈합니다. 모세혈관은 아주 가는데 비해 그 안에 이런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혈전이 있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전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혈관의 노화에 있으며, 혈액 속의 지방이나 유해 콜레스테롤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혈전증은 주로 고령자나 비만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운전자 혹은 고령의 골절환자와 같이 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서 잘 발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흡연자 가운데 쉽게 발병하며 심할 경우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음식 조절과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 건강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혈관 내 혈전을 제거하는 이른바 '혈관 대청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뜻한 봄철을 맞아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듯 체내에 쌓인 혈전을 녹이는 혈관 청소도 빠지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바이오텍 문의처: (213) 383-8899, (213) 383-8899 (LA 한인타운 내 윌셔와 버질에 위치해 있으며, 가까운 곳은 배달도 가능합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13년 신[편]입생 모집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과정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2013년 가을학기부터)

여름계절학기
■기간 : 6월 10일(월) ~ 8월 16일(금)
■개설 과목 : 신구약중간사, 목회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선교와 세계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혜문학 외 다수
■등록 : 5월 13일(월) ~17(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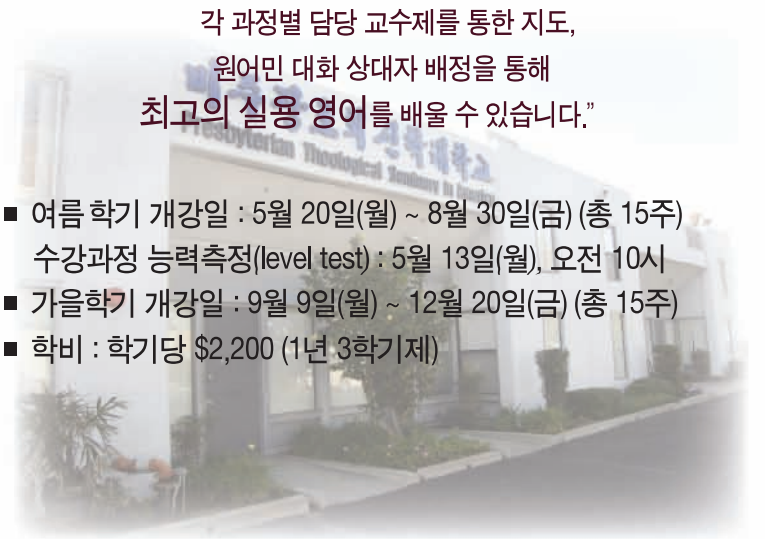
가을학기
■ 가을학기 개강일 : 8월 26일(월)
■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 입학 관련 문의 : Tel. 562.926.1023, ext. 300 / E-mail. office@ptsa.edu

본교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인 동시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본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 예장통합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한국 예장통합으로 이명도 가능합니다.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SEVIS I-20 발행

이사장 김인식 목사
총 장 이상명 박사

ESL 과정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지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여름 학기 개강일 : 5월 20일(월) ~ 8월 30일(금) (총 15주)
수강과정 능력측정(level test) : 5월 13일(월), 오전 10시
■ 가을학기 개강일 : 9월 9일(월) ~ 12월 20일(금) (총 15주)
■ 학비 : 학기당 $2,200 (1년 3학기제)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 www.ptsa.edu

지금 무엇과 교환하며 살고있습니까?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0년쯤 된 이야기이지만 가정의 달에 있었던 화젯거리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주 우드브릿지에서 24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첸트 페르난데스' 라는 이 여인은 다섯 살 난 딸을 차에 넣어두고 밤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잠에서 깨어 몹시 울어 이를 경찰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부수입을 위하여 밤일도 했습니다.

그녀는 시가 3만 5천 달러의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고, 1만불 상당의 도요타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행융자 상환금과 딸의 사립학교 학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가구점인 '포추노프'에서 밤일을 했습니다. 그만한 수입이면 밤에 몇 시간씩 딸을 돌보아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누구나 하겠지만 본인 말에 의하면 두어 번 사람을 써보았는데 하는 일이나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나빠 자동차 속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가정의 달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젯거리가 되었으며, 동정과 욕을 동시에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도 나라가 주는 사회복지금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려고 몸부림치는 갸륵한 직업여성의 모범이며 미국 여성의 영웅이다"라고 동정론을 폈습니다.

반면 "몹쓸 여자", "돈만 아는 인간", "무정한 어머니" 등 비판의 화살도 많았습니다. 재판도 정상참작을 많이 해서 실형이 내려지지 않고 모녀가 상봉하는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대한 인생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평생 살아가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교환하며 사는 것인데 무엇과 교환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30분 가게를 더 열 것이냐, 잠을 더 잘 것이냐, 운동을 할 것이냐, 기도를 할 것이냐, 성경을 읽을 것이냐... 하는 작은 일까지 하루 종일 그리고 일평생을 우리는 여러 종류의 교환을 하며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과 자기의 어떤 것을 교환한다는 것이고, 추한 세상이란 추하고 더러운 것과 자기의 어떤 것을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노력을 성공하는 것과 교환한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과 교환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 1회 뿐인 나의 생애를 무엇과 교환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축복의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의 속임수와 교환해버려 실패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에덴동산을 잃고, 자녀들은 살인하고, 서로 의심하며 근심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행16:31) 예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성공의 길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의심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순종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아에 속한 것들을 성령님의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교환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와 대중매체의 힘 등, 세속의 무서운 파도는 우리와 자녀들을 침몰시키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나와 내 가정은 지금 무엇과 교환하며 살고 있습니까? 샬롬!

흐려서 좋은 날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지난 주일 1, 2부 예배를 마친 후 야외예배를 드렸다. 일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지라 이미 오래 전부터 날을 잡고 준비를 해온 행사였다.

그런데 행사를 앞두고 날씨 비상이 걸렸다. 큰 행사를 앞두고 일기예보를 예의 주시해서 보던 관계자들이 어쩌면 행사 당일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며 염려를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기예보가 야외예배가 있는 해당 주일을 전후해서 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일기예보에 따라, 당일 많이 흐리겠지만 비는 아니라는 약간은 희망적인 예보를 하는 곳도 있었고 비가 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보를 하는 곳도 있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온 교회가 참여하는 행사에 비가 오게 되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지 잘 아는 까닭에 행사 며칠 전부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일기예보가 바뀌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더 비 올 확률이 커지고 있었다. 마침내 디데이(D-Day).

주일 새벽에 교회로 오는 길에서 보니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있었고 간간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같았다. 큰일이다 싶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행사를 주관하는 장로님과 행정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 번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았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상황은 좋지 않았다. 행사 당일 12시-2시까지 비올 확률이 40%, 2시부터 4시까지는 50%의 비 올 확률이었다. 미국 일기예보의 정확도로 미루어보면 이것은 거의 비가 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를 어찌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다.

부랴부랴 장로님 몇 분들과도 의논을 해 보았다. 그러나 그 분들이라고 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올 것이 뻔한데 이대로 행사를 강행하기보다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나아 보였다.

그런데 왠지 마음 한 구석에 "그냥 가라. 내가 언제 너희 잔치 날에 비를 내리더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지난 20여년 간 이 행사를 계속해 오면서 매년 날씨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준비된 선발대들이 도착하고 있기도 했다.

그래서 주관부서의 장로님과 함께 일단 기도하면서 행사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중간중간 상황을 보고 대응하기로 했고 이윽고 장로님을 비롯한 선발대들이 출발을 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론 내심 날씨가 여간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행사와 날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다행히 2부 예배를 마치기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 모든 교인이 다 공원으로 떠났고 이제부터 전적으로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잔뜩 염려하며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비록 날씨는 잔뜩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묘하게도 찌푸린 가운데도 행사장의 하늘 위에는 순간적이나마 살짝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이기까지 했다. 왠지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그래도 걱정이 싹 가신 것은 아니었다. 꾸물꾸물 날씨는 흐렸지만 다행히 점심 식사를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선 이런 저런 재미있는 게임들이 진행되었는데 유난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다. 하나 둘 게임이 진행되면서 함께 걱정하던 장로님 집사님들의 얼굴도 활짝 펴졌다.

결국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비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집으로 오는 길에 야외행사 때마다 추위를 많이 탔던 아내는 이날은 어쩐 일인지 야외에 나와 있는데도 푸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괜히 비바람과 추위를 염려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좋은 하루를 마치고 기분 좋게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날씨를 염려했던 탓일까? 자는데 후두둑 후두둑 세찬 빗소리가 들렸다. 그 빗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비몽사몽간 나는 "할렐루아! 아멘!"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l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562-467-1114
cer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사랑헬스케어는 여러분을 의료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크리스천 헬스케어 플랜 월$62부터
크리스천 건강검진 플랜 월$30부터
16만 크리스천 가정과 많은 기독교 단체가 건강보험 대신
Healthcare Sharing Ministry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여단체 CTS AmericaTV GBC 미주복음방송 AM1190 CGNTV USA
621 S. Virgil Ave. #410 Los Angeles, CA 90005
Tel.213-986-8119 Fax.213-254-0464
www.saranghealthcare.org
문의전화 이원준 전도사 213-700-9212
제임스정 전도사 714-873-8724

부모 마음

김 지 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 고시를 치뤄야 합니다. 논문을 제출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다시 구두시험을 통해 소명의식, 신학, 목회관, 성품 등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소양에 결점이 없음을 확인받은 후 안수를 통해 목사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목사 고시 과정 중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가 가져야 할 마음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듣기에는 무척이나 간단 명료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칼처럼 날카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로 목사가 되기 위한 소명의식, 목회관, 성품, 더 나아가 신학관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강한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선배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있습니까? 진짜 목사가 될 사람은 이런 질문에는 반사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라며 "부모의 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한 마음이 있다면 부모 마음일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평생 목회를 하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목사라 할 것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저를 배려하듯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의 가르침으로 자문자답해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후 제게 있어서 목사의 기본 소양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와는 달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미혼 목사 후보생들에게는 결혼할 것을 권면합니다. 목사 안수를 기다리는 미혼 목사 후보생들에게 왜 굳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권면할까요? '부모마음'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때 비로소 가정의 가치와 거룩함을 터득하게 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란 '사람 사랑하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개발시키며,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람 사랑'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가능성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랑'은 모든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기초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 사랑하는 것이 어디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던가요? 마음을 먹고 또 먹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사랑에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적어도 자기 자녀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해도 부모만큼은 '예스'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부모만큼은 '노'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넌 믿을 수 없어'라고 손가락질 해도 부모만큼은 '난 너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부모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보입니다. 그것은 본능적 부모 마음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거의 무한대의 애정… 그 애정은 하나님의 사랑에는결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그 무엇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 마음'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 성도를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안식월 기간 동안 목사의 기본 심성인 부모 마음을 더 넓고 깊게 스스로 개발시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선하고 자상한 영적 부모가 되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두손 모아 주십시오.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두번째 지팡이

이 학 진 장로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싹난 지팡이〉 저자

사복음서를 통합하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정리한 8단원에서 두번째 부분을 첫번째 유월절(셋)과 두번째 유월절(넷)을 나누어 살펴보면

▶셋, 요 2: 13-4:54
첫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 (예루살렘, 갈릴리)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 요 2:13-3:21,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서 추수할 때까지의 수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참고, 막 11:15-17, 마 21:12-13, 눅 19:45-46. 2차 성전 청결) 유대인의 지적 종교적 최고봉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구원)의 서론적 부분인 '생명과 거듭남'을 설명하시는 등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2) 요 3:22-30,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심으로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세례를 베푸시며 세례요한과 공동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 요 4:1-42,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생명의 물'의 말씀으로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임을) 구원을 증거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4) 요 4:43-44,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계속되는 갈릴리 사역: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끝내고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을 찾으십니다. 공생애 사역 전에 고향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 때가 마침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3절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하나님의 신원의 날인 희년에 대하여 설교하시고 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자기라고 밝히시므로 박해를 받으십니다(눅 4:16-21). 그리고 갈릴리의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5) 마 4:13-25, 8-9장, 1차 갈릴리 전도사역: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투옥당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시고(본 동네, 가버나움)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순회사역의 주제로'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온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잔치로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병들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고쳐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며(가르치며), 전도여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는 병들고 고난 받음이 없고 기쁨의 잔치가 배설되는 것(구원을 전파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가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고,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식사하심으로 유대인들의 금식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넷, 요 5:1-6:3, 마 5:1-7:29
두 번째 유월절과 2차 갈릴리 전도사역(예루살렘, 갈릴리)

예루살렘 성 양문 근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 유대지도자들은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예수님의 정체성 논란의 시작) 주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십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천국이 도래했음과 곧 도래할 것(완성)의 이중적 구조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릴리 순회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관복음에는 산상수훈(팔복; 마 5:1-12, 과 믿는 자가 지켜야 될 말씀; 마 5:13-7:29)을 하나님 나라의 새 기준과 새 율법으로 제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제자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설명하십니다.

두번째 갈릴리 순회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교훈이며(참고, 잠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복주시기 위하여 언약으로 주신 구약의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모든 법의 뿌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1-4 계명),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5-10 계명)으로 이 산상수훈은 구약으로 연결되며(신 6:5, 레 19:18)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마 22:36-39).

1) 마 5:1-12, 팔복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완전히 다른 하나 하나의 복이며 최상의 복입니다,

2) 마 5:13-7:29, 그리고 믿는 자가 지켜야 될 말씀을 나열하고 설명하십니다. 소금, 등경을 예를 들어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고, 살인과 간음을 예로 하여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대비하여 설명하십니다. 거짓 맹세, 복수하는 일, 원수에 대한 사랑, 구제, 기도- 주기도문, 용서하라, 금식하는 자세, 보물을 쌓아둘 곳, 근심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은혜를 구함, 좁은 문, 거짓 선지자 등의 구원에 대한 교훈들을 권위있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신앙과 행위에 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끝내십니다. 결론적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눅 10:21-22)'고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3) 마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7가지와 막 4장의 부연된 2개의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을 설명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하며, 그 제자로서의 모습과 조건과 사명(마 10:5-25, 10:37-38, 눅 14:25-35)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5.18민주화 운동 기념 및 추모식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은 1980년 5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시민의 민주 평화 통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 한 후 매년 5월 18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민주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정부행사입니다.
33년 전 광주의 민주 정신은 이제 국민화합과 진정한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앞당겨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뜻깊은 의미를 담은 5.18 행사를 남가주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많은 한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 시: 2013년 5월 18일(토요일) 오후 1:00
- 장 소: LA한인회관 1층 대강당
  981.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연락처: 213) 604-0099

※간단한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주 최 : 5.18 민주화 운동 추진 위원회 ▌후 원 : LA총영사관, LA한인회, OC한인회, 동부한인회, 북부한인회, 남가주 LA민주연합, 남가주 충청향우회, OC 호남향우회, 남가주 호남향우회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재정 플러스

아반지니 | 노시백 역 | 베다니출판사 | 224쪽

크리스천 경제경영 미니북 시리즈 첫번째 책이다.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재정 증가의 돌파구를 열어준다. 저자는 재정이 풀리지 않고 힘겹게 삶을 사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 그 영적 원인과 함께 재정 증가의 길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제시한다.

고난의 참된 의미

토마스 왓슨 | 임세일 역 | 목회자료사 | 176쪽

책에서 저자는 2가지 고민을 말한다. 하나는 어떻게 악한 자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가 비참함을 깨닫고 슬퍼하도록 할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한히 기뻐하도록 할까 하는 것이다. 낙심에 빠진 이들을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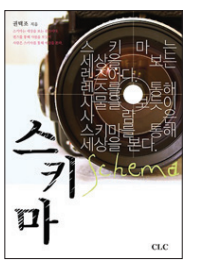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권연경 | 성서유니온선교회 | 256쪽

갈라디아의 위기는 위선적 영성의 유혹이다.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믿음의 삶은 꺼리면서도 여전히 믿음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이다. 좀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으면, 그 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 갈라디아서의 복권(復權)에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키마

권택조 | CLC | 224쪽



인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곧 인간의 두뇌에 나쁜 스키마(schema)가 좋은 스키마로 변화되며, 계속하여 좋은 스키마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스키마 계발을 주제로 한 이 책은,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책인 성경을 모델로 하여 집필됐다.

REVIEW

'주님의 제자' 라는 이유만으로, 우릴 싫어할 사람 분명 있다

동성애에 맞서고 있는 그렉 로리 목사의 최신간

최근 '그렉 로리(Greg Laurie)'라는 이름이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빌리 그래함 목사로부터 "오늘날 미국에서 그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평을 들었던 그는,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담임목사이다.

미국 '국가 기도의 날' 명예의장직을 맡고 있는 그에게 친동성애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톰 페티). 사과할 계획이 없다"고 선포해 관심을 끌었다.

그의 한국어판 최신간은 지난해 토기장이에서 나온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원제 Let God Change Your Life)〉이다. 이 책에서 로리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제자도,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 등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촉구한다. 또 하나님을 알고 제자도를 적극 수용하며,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초대교회들이 삶으로 증명한 믿음의 모든 요소들을 공유하고 수용하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제자도에 대해 "그 기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누군가와는 관계가 심각하게 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제자로서 그의 뜻을 행한다면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당신을 싫어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 친동성애자들에 대한 그의 최근 발언은 이 책에 따르면 이미 예견된 셈. 그는 또 말한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한 가지다. 바로 죽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이것은 자기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 때로 사람들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또는 어려운 관계나 장애물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른다는 뜻이다. 오늘날 문화 속에서 이런 가르침은 절대 매력적인 메시지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에까지 만연한 자기 사랑의 거대한 물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제자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선,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신 분에게 어찌 그토록 인색하게 굴 수 있는가?" 로리 목사는 제자로서 헌신하기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복음 전파와 제자도를 분리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제자훈련은 우리 삶을 열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훈련이다.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
그렉 로리 | 김진선 역 | 토기장이 | 360쪽

그는 '헌신'에 대해 꼭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시간과 재능을 우리와 나누고 계심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오늘 기꺼이 자신을 헌신할 마음이 있는가?"

이대웅 기자

REVIEW

가정의 달 5월, 믿음의 유산 전할 '이것' 도 시작해 보자

본격 가정 예배 입문서

날이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세상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 신앙이라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수할 방법은 무엇일까.

가정의 달,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가정 예배'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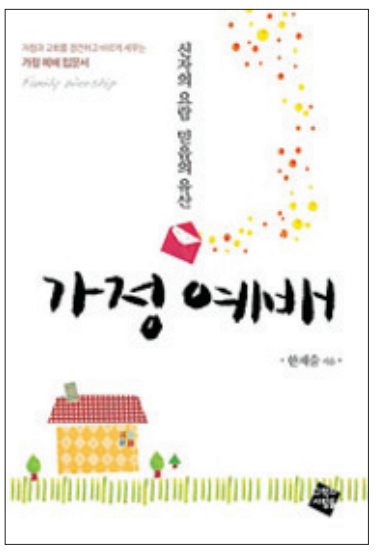
출판사 '그책의 사람들' 한재술 대표의 두번째 책인 〈가정 예배〉는 '신자의 요람이자 믿음의 유산'인 가정 예배 입문서이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온 저자는 결혼 후 두 자녀가 태어난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의 산 증인'이다. 심지어는 결혼 후 '첫날 밤'에도, 첫째 '하영이'가 태어난 날에도 어김없이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이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독서 모임에 대한 자신의 첫번째 책 〈독서 모임-대답은 있다 이야기〉처럼 가정 예배에 대한 간략한 이론과 더불어, 가정 예배를 실제로 드리면서 부닥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미리 알려준다.

저자는 가정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성경적인 수단"이라 정의한다. 물론 성경에 '가정 예배'라는 단어는 없다. 하지만 성경 곳곳(신 6:4-9, 8:3, 11:19-20, 잠 22:6, 마 28:20, 엡 6:4, 딤후 1:5, 3:14-17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신 6)" 방법은 가정 예배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가정 예배를 실제로 드리기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는 간단히 정리한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듭난



가정 예배
한재술 | 그책의 사람들 | 168쪽

그리스도인조차 교만, 게으름, 영적 무관심 등 같은 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원인들 외에 육체적 고단함, 미숙한 인도, 성격, 부족한 지식, 시간 맞추기, 장소,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도 존재한다.

이런 난관에 부딪힌 이들에게 저자는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정리한 다음, 잘 갖춰진 것들은 더욱 강화해 자리잡게 하고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더 많은 기도와 애정으로 해결해 나가라"고 독려한다. 가정 예배도 독서 모임 또는 농사 짓기와 같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

가정 예배 시간은 적어도 10-15분은 넘어야 하고, 30분 정도면 적당하다. 가족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시작 시간은 정해놓고 엄수하는 게 좋다. 순서는 사도신경(1-2분)과 찬양(5-8분), 말씀 나눔 또는 교리 문답(5-10분), 찬양과 감사(3-4분), 기도(3-5분)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간 내기가 힘들테니, 5분으로 시작했다가 한 달쯤 계속해서 습관이 되면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게 좋다. 도저히 안 되겠다면, 주말만이라도 성실하게 모이라고 권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하고 꾸준히 지키는 것"이다.

이밖에 부모가 믿지 않는 경우나 준비 과정 등 다양한 노하우들과 실제 사례들을 알려주고 있다. '독서'가 아닌 '독서 모임'에 대한 실제적 이야기들을 쏟아낸 전작처럼, 독자들이 갖고 있는 실천적 궁금증들을 적절하게 채워주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가정 예배를 드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 안에서 놀랍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 결혼했어요' 가 아니라 '사랑과 전쟁'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혼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가?

"흔들리는 가정이 어디 이 가정 하나 뿐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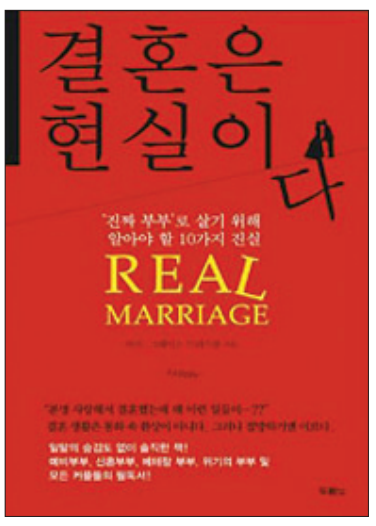
책 표지색이 '빨간색'인 것을 보고 알아차렸어야 했다. 〈결혼은 현실이다(Real Marrige·두란노)〉는 그 제목처럼, 리얼하고, '결혼'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결혼 생활'을 담았다. 하긴, 결혼 생활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배신과 음모, 서스펜스와 유혹과 인내로 가득 찬 한 편의 리얼 버라이어티나 드라마와 같지 않은가.

저자도 의외다. 시애틀 마르스힐 교회 담임목사인 마크 드리스콜 목사 부부. 특히 얼마 전 본지에도 '더 나은 설교 방안'을 제시한 '젊은 대형 교회 목회자'로 소개된 드리스콜 목사는, '프리칭'의 '지난 25년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목회자 25인'에 선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목회자이자, 부흥과개혁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교리〉, 〈빈티지 교회〉, 〈전도혁명 선교개혁〉 등을 쓴, '새로운 스타일의 개혁주의 목회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신세대'답게 매주 13,000명 넘는 성도가 모이는 담임목사로서의 체면을 내려놓았다.

오늘도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갈라선다는 통계 앞에서, 드리스콜 부부는 자신들의 낯뜨거운 실패담과 치부까지 꺼내보인다. 혼전의 난잡했던 이야기를 포함해 숨기고 싶은 일들까지 드러내면서, 부부는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모든 가정에게 함께하셔서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길, 썩은 부분을 남김없이 도려내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성생활을 엿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라"고 당부한다.

책에서는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될 것'이라는 꿈이 결혼해도 모든 문제는 계속 쌓인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결혼하는 순간 환상적인 성생활이 저절로 펼쳐질 것이다'는 환상은 '부부에게 성(性)을 선물하신 하나님 뜻을 모르면 서로에게 재앙'이라는 실상에 여지없이 무너진다. '금슬 좋은 부부는 결코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부부 싸움



결혼은 현실이다
마크 · 그레이스 드리스콜 | 정성묵 역
두란노 | 352쪽

을 잘 할수록 결혼 생활의 질이 높아진다'는 대답이 대신한다.

매일 밤의 헤어짐이 아쉬워 가족의 품을 떠나 함께 살기로 한 수많은 남녀 청춘들이 '사업 파트너'처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드리스콜 부부는 마르틴 루터를 통해 부부 로맨스의 열쇠가 '우정'에 있음을 깨닫는다. "인생을 함께하고,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돌보며 나란히 늙어가고, 서로에게 솔직하고,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것, 이 모두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우정이다. 남편과 아내가 평생 해로하려면 무엇보다도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자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조건을 'FRIENDS(친구)'라는 단어로 요약한다. 배우자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돕는 친구(Fruitful), 사랑의 행위를 서로 주고받는 친구(Reciprocal), 얼굴을 맞대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친구(Intimate),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친구(Enjoyable), 상대방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친구(Needed), 인생의 사계절마다 의지할 만한 헌신된 친구(Devoted), 함께 성화되어 가는 친구(Sanctifying) 등의 머릿글자를 딴 것이다.

또 '가장'으로 대우받고 싶은 남편들에게는 '책임감 있게 아내를 전인격적으로 존중할 것'을,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남편'을 원하는 아내들에게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밖에 부부 싸움 '잘' 하는 법이나 결혼 전의 '과거사'에 대처하는 법, 성욕이나 포르노, 부부간 성관계 등 실질적 문제들을 조언하면서, '완벽한 부부'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부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부부의 성(性)을 비롯해 재혼과 이혼, 불신자와의 결혼 등을 성경 안에서 고민한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왕제 김기형
훼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Western Ave Los Angeles.CA.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텐 전문
가 주
L.A. 커텐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WINDOW FASHION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빅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 적 해 결
소장: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용접,게이트
모터 수리
계단,펜스,창틀,보조문
경남 철공소
213-256-48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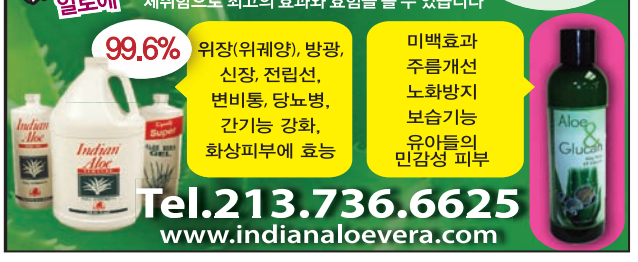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주식회사.교회.비영리단체 설립
✓혼인/이혼, E2 투자 ✓퇴거, 소액재판 ,파산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노인시민아파트 신청대행
☎213-365-6622 (67가+사우스베일러한의과대학 옆 흰색빌딩)
520 S.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베타 글루칸 로션
먹고 바르기도하는 알로에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디자이너
로뎀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GoSmartworld.com
건강 용품 전문점!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특매일 방법 $3,900 +Tax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실리콘! 자동차 핸들 커버
$30 +Tax 강력한 음이온+원적외선 발생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로데오 갤러리아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one stop
브로셔,행사순서지,교회주보,교회절기배너

가수 윤복희 "주님 계시니 단 1초도 외롭지 않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모든 것 바꾸어

"어려서부터 당연한 듯 무대에 섰고, 밀려온 성공에 교만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국내 외에서 큰 성공을 달리고 있던 가수 윤복희(사진)에게 하나님은 극적으로 찾아오셨다. 교통사고로 차가 공중을 도는 급박한 상황가운데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그렇게 기적같이 살아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베푸셨다. 삶 전체를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윤복희 권사가 C채널 힐링 스토리 '회복'을 통해 풀어 놓은 이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열정적으로 바쁘게 사역하시지만 외로울 때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요" 라고 답한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잠을 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단 일초도 외로운 적이 없었다고 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바쁘시죠?" 라는 질문에 윤 권사의 답은 여전히 "전혀요"다.

"저는 시키시는 데로 가기만 하면 되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혀 바쁘지 않아요. 바쁘시면 하나님이 바쁘시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낸 삶의 향기는 지금은 목사가 된 오빠 윤항기씨를 전도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주님을 영접한 후 모든 연예활동을 내려놓았던 윤 권사가 그를 이끌었던 故 하용조 목사에 말씀에 순종해 뮤지컬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뮤지컬계에 새로운 전통이 세워졌다. 첫 공연의 시작을 '고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해 일하실 뿐이죠"

순종이 일상이 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나는 가수다를 통해 '여러분'이라는 곡이 다시 주목을 받았을 때 윤 권사는 "감동을 받고 은혜로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윤 권사는 나가수의 뒷이야기도 풀어 놓았다.

나가수에 출연한 임재범은 '여러분'을 부르기 전 윤 권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아내의 암 투병으로 심신이 지칠 때, 임재범은 매일 한 시간씩 욥기서를 묵상하며 '여러분'을 준비했다. 당시 경연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주님을 향한 것이였다고 윤 권사는 전했다. 하나님은 윤복희 권사와 여러분이라는 곡을 통해 가수 임재범을 만났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울렸다.

"하용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들려주신 음성으로 만든 곡이 여러분이에요. 영어로 들려 주셨는데 It's you 에요. 네가 외롭네 내가 위로해 줄께.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대속 재물로 내 주었니 바로 너야 (It's you)"

가정의 달, 5월에 얽힌 이야기들

어느 청년이 결혼했다.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 시댁 나들이였다. 친정집은 생각지도 못하고 시댁부터 챙겨야 하는 마음에 조금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시어머님을 만나 뵙고 용돈을 드렸다. 그런데 용돈이 친정과 달랐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밖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다.

"왜 울고 그래? 뭐 불편한 것 있어?" "아니야. 그냥."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게 밀려나는 친정. 한순간에 달라지는 생활 패턴. 여성들이라면 이 마음을 공감하겠지? 한 아가씨가 결혼을 했다. 꽃집 며느리로. 우아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픔이 있다. 5월이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어진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꽃집은 1년 대목을 한 달 동안 봐야 한다.

그때마다 며느리의 손길이 필요하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5월의 몸은 그야말로 파김치가 된다. 어린이날이라도 아이들은 뒷전이다. 그래서 여동생 가정에 맡겨 외식을 하곤 했다. 엄마는 그게 늘 마음 쓰인다. 그렇게 한 게 벌써 몇 년째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더 힘들었던 게 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렇게라도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얘야, 너무 고생 많았다. 이것 가지고 가서 아이들하고 외식이라도 좀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일당이랄까, 수고비랄까,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몇몇 주부들과 나누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주부가 말했다. "나는 시골 가서 일해주면 시어머님이 일당 3만원씩 쳐주는데…."

그 역시 6월이면 시골을 간다.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일손을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손을 거들어 드리고 나면 일당을 쳐준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주부가 말한다.

"그런데, 식당 하는 집은 더 그렇다. 식당은 주말마다 가서 도와야 한다."

어버이날이 되었다. 어느 집사님이 미리 시골을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번 역시 아내 혼자 시골을 내려가야 할 형편이다. 전날 저녁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대답했다. "절대로 내려오지 마라. 절대로! 안 내려와도 괜찮다."

그리곤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내는 헷갈렸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어쩌지? 어머님은 절대로 내려오지 말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끊으셨는데?"

"그래도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마음먹은 김에 갔다 오지?" "그렇겠지? 알았어."

다음날 아내는 이른 아침부터 챙겨 시골을 내려갔다. 부지런히. 시골을 도착하는 순간,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말씀하셨다. "이제 오냐?"

며느리는 생각했다. '이제라니요? 내려오지 말라고 하실 땐 언제고요?'

그럼 어디 며느리들만 할 말 있을까? 시어머니라고 할 말 없을까? 그들의 아픈 마음 한번 헤아려 보자.

어느 시골 부모들이 전답을 처분했다. 왜? 서울 아들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아들 내외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생활이 어디 익숙하겠는가? 외출도 자유롭지 않다. 갑갑증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시골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데 더한 것은 며느리의 태도이다. 며느리는 집에 애완견을 키웠다. 개에게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해다 바쳤다. 애지중지하는데 상전이 따로 없었다.

개가 조금 이상하면 당장 병원에 데려간다. '우리 집 강아지가 뭘 잘 먹지?' 하며 간식도 사다 나른다. 어디 그 뿐이랴. 미용실에서 염색도 해준다. 목욕도 부지런히 시켜준다. 다정하게 산책도 해준다.

그런데 정작 자기 시부모를 대할 때는 전혀 딴판이었다. 며느리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이지 화딱지가 났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시아버지가 개집에 들어갔다. 그러더니 도대체 나오려고 하질 않았다. 민망해진 며느리가 사정을 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발 개집에서 나오세요."

그런데 아무리 사정해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며느리는 난감했다. "벌써 치매에 걸리실 리는 없으실 텐데, 왜 저러시지?"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아들이 돌아와서야 시아버지가 말문을 열었다.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 왜일까? 집에 키우는 개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입히고, 씻겼다. 그야말로 지극정성이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찬바람이 쌩쌩 돌았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 결국 그 시부모는 처분해 온 모든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화여대생 200명에게 "앞으로 각자 살고자 하는 집을 설계해보라"고 했다. 대부분 애완견 방을 설계했다. 그런데 부모님 방을 설계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다. 자식에게 해 준 것은 없고, 상처만 주는 부모인데, 그런데도 공경해야 하느냐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경해야 한다. 어디 한번 대답해 보라. "나는 상처를 안 줄 부모가 될 자신이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식들이 우리 말을 거역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가? 그건 모순이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공경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부모님의 은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문제다. 살을 깎는 은덕이다.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다.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 걱정 안 끼치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부부가 잘 살면 된다. 이혼한다고 법원을 드나들지 않으면 된다. 대학 갈 때 들어가 주고, 취업할 때 취업해 주면 된다. 그게 최고의 효도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다가온다. 부모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아니 기다려 줄 수가 없다. 우리 곁에 있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보이는 부모부터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외식하는 믿음이다.

어버이날 하루 부모님에게 잘 하는 게 아니라, 365일을 어버이날로 지키는 게 진짜 효도하는 것이다.

/글= 성천교회 김병태 목사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PH
푸엔테힐스현대
SUPER STORE
PUENTE HILLS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MEMORIAL DAY
SPECIAL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만나세요!
$69
+TAX (STK #09212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5,985
PH HYUDAI D/C $1,344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90
+TAX (STK #70149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60
PH HYUDAI D/C $2,300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473
+TAX (STK #065945) Demo
48 Month lease/12k mile/T.D.O $4,999
MSRP $60,170
PH HYUDAI D/C $8,2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ACCENT GS M/T
2013 SONATA GLS
2013 EQUUS SIGNATUR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